

# 불붙은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 김재균 이어 강기정 출마 선언 '2파전'

### 주류·비주류 대결 양상 박빙승부 예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이 본격화됐다. 조선인 김재균(광주 북) 의원의 출마 선언에 이어 재선인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이 2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오는 11일 치러질 시장 위원장 경선이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강기정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정권탈환과 민주당 혁신을 위해 힘을 쓸 것"이라며 광주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광주시당은 시민과 민주당원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당의 큰집으로, 그 중심에 서야 한다"며 "광주에서 '정권탈환 예나지'를 만들지 못하면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결심으로 시장 위원장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광주시당 ▲사람을 키우는 광주시당 ▲당원이 즐거운 광주시당 ▲공감·공존·공유의 정신 실현 등 4대 분야 20개 사업을 제시했다. 강 의원의 이날 경선 출마로,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재균 의원과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은 주류인 강 의원과 비 주류인 김 의원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10·3 전당대회 전 초전으로 여겨져 경선 결과가 어느 때 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선거인단(600여명)이 10·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게 돼 있어 시장 위원장 경선 결과를 통해 미리 전

당대회에서의 광주 표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판세는 박빙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강 의원은 광주시당의 정치활동 강화와 인재양성, 정책생산 능력 배양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 의원은 민주세력과의 소통과 연대 활성화,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 광주시의 중장기적 핵심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위원회는 물론이고 일부 다른 지역 대의원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끌어 모으고 있고, 김 의원은 주류에 대한 견제와 당의 변화를 바라는 지역위원회 대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의원은 6·2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공천탈락자들로부터 반감을 사왔고, 김 의원은 광주시가

자신의 복구 유망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앞으로 경선 때까지 소수 선거인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6·2 지방선거에서 불거졌던 반 강기정 세력도 거의 잠재웠다"면서 승리를 자신했고, 김 의원 측도 "대의원을 중심으로 밀바닥 정서를 파고 든 만큼 승리에 자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주류와 비주류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선거인단이 600여명에 불과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며 "일부 혼탁과 과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영주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김효석 "대권주자들 전대 나서지 말아야"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은 2일 "대선 주자들은 10·3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도전에 나선 이른바 '빅3'(손학규·정동영·정세균)를 향해 '소인배', '연계소문의 아들들'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등 한나라대선 주자들처럼 당권을 넘바서는 안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당권·대권 주자 분리를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파 간 유·불리 계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 규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소위 '빅3'라는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면 우리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지연 원내대표가 계파를 초월한 팀플레이를 통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성과를 올리는 교훈

을 남겼다"면서 "중립적이고 계파색채가 없는 사람이 당을 맡아야 팀플레이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MB정부의 공정사회 구

현과 관련해 검찰 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소고발권 폐지를 관철하는 등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고 뜻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서갑원의원 민주 국회 예결위 간사 선임

서갑원 의원이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것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을 두 차례나 역임한 바 있는데다 18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 보여준 대외 협상 및 조율 능력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 의원은 "국가예산 집행의 철저한 감시자 역할은 물론 서민일자리 창출과 교육 및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며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갑원 의원은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것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을 두 차례나 역임한 바 있는데다 18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 보여준 대외 협상 및 조율 능력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 의원은 "국가예산 집행의 철저한 감시자 역할은 물론 서민일자리 창출과 교육 및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며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갑원 의원 (순천시)이 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로 선임됨에 따라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예결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서갑원 의원을 내정함에 이어 민주당 예결위원 14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의원으로는 조영택·장병완 의원 2명이 포함됐다.

# '강성중 체포 동의안' 가결

## 국회 본회의...15년만에 처음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제명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교공급 명령 협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국회본회의의 신상발언에서 "양심에 한나라도 문제가 됐을 어떤 돈,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했다.

그는 "처남이 연루된 '가정사'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항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뒤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성희롱 발언' 과문을 일으킨 강용석(서울 마포 을)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재적의원(172명) 3분의 2 이상인 135명이 참석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안을 의결, 강 의원을 출당시켰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대학생들과의 만찬석상에서 아내를 지칭하는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 윤리위는 곧바로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리위 결정 이후 40일 만에 제명된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정국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탈당권유를 했지만 본인으로부터 탈당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공급 명령 협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성중 의원이 신상발언을 끝내고 박지연 비대위 대표의 위로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정가 라운지

## 서대석 "비민주 후보 단일화 하자"

서대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은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지역파권정치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비민주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후보 단일화를 제의한다"면서 광주 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전 비서관은 "서구청장은 창조적 마인드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여야 하고, 따뜻하고 정직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인사와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반드시 비민주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자"라며 비민주 야 4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여 년 간 3선의 서구의원과 시의원의 의정경험과 사회복지 전문행정가로서 그동안 생활정치현장에서 즐기차게 펼쳐온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구민참여행정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따뜻한 맞춤형 복지 브랜드 정착 및 건강 도시건설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웰빙문화생태가 함께 하는 새로운 서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희곤 "시교육청 예산 사장 우려"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2일 2009년도 시 교육청 결산안 심의를 통해 "현 교육감은 예산 편성만 하고 집행은 차기교육감이 하게 돼 있어 예산의 불용으로 인한 사장의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시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예산 편성부서와 교육감 당사자 측,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예산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2009년 시 교육청의 사업비 집행률은 85%에 머물러 2000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등 불용액이 전체 예산대비 8.5%에 이른 다"며 "이 같은 불용액 등은 광주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박금자 "새로운 서구 만들겠다"

박금자 전 광주시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구의 새로운 아침을 만들겠다"라며 오는 10·27 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시의원은 "서구에서 20



**전북구이 전문점 전북장터**

전북장터

전북구이 전문점

TEL. 062-576-8600

광주광역시 서구 남산동 101-1

전북장터

전북장터

라동 모인바형, 총 9시  
대행주차장 완비

전북장터

예약문의